



▶ 2009. 1. 19 배포  
▶ 총 2쪽(사진 없음)

## 보 도 자 료

▶ 고용서비스지원과장 김영국  
▶ 이병성 사무관  
TEL : 2110-7134  
E-MAIL : bslee@molab.go.kr  
FAX : 6902-8422

### 「빈 일자리 지원 전담반」 구성, 취업난과 구인난 동시 해소 나서

-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인력부족기업 “기업별 전담자” 및 구직자 “취업후견인” 지정·운영

□ 전라북도 전주 소재 A기업은 배송납품 운전원을 채용하기 위해 지난 한 해 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인 Work-Net에 5회의 구인신청을 하고,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구직자를 알선을 받았지만 직원을 구하지 못했다.

○ 이처럼 최근 경기침체로 일자리 창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, 한편에서 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.

\* 300인 미만 사업체의 미충원인원은 86천명으로 나타남('08.하반기 노동부 「인력수요동향조사」)

□ 이에 노동부는 전국 47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3~5명의 “빈 일자리 지원 전담반”(이하 “전담반”)을 구성하여 기업의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를 찾지 못한 빈 일자리에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.

○ 우선, 2월 15일까지 Work-Net에 빈번하게 구인 등록하는 전국의 17천여개 사업체를 조사·분석하여 상세한 구인정보 DB를 구축하고,

○ 조사결과 DB에 포함된 인력부족기업에 대하여는 “기업별 전담자”를 지정, 해당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와 상시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수시로 구인수요 파악 및 집중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.

○ 구직자에 대해서도 “취업후견인”을 지정, 구인 기업에 대한 상세 정보제공, 집중 상담, 동행면접 등을 통해 적극적인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.

□ 한편, 실태조사와 더불어 1월 15일부터 한 달간 전국적으로 인력부족기업 “특별 구인등록기간”을 운영하여 적정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체의 구인 신청을 받는데 자세한 사항은 전국의 고용지원센터(1588-1919)로 문의하면 된다.

□ 노동부 이우룡 고용서비스기획관은 “경기침체 속에서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구직자의 눈높이 조절을 통해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연결하여 취업난과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”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